

## IV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국내 건설업체들은 건설투자 둔화, 국내시장 개방, 부동산 급증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, 기술력에 기초한 내실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

## ■ 건설업의 21세기 과제

## ○ 국내 건설산업, 전환기에 있음

-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
- 건설투자의 증가세 둔화, 개방에 따른 경쟁 격화, 부동산의 급증 등 경영 환경이 악화
- 고도 성장기의 외형 성장에서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등 내실 성장으로 전환이 요구
- 21세기 준비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가 중요
- 국내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경영력 집중
- 특히 건설관리공사, 설계, 엔지니어링, 감리 등 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열위 극복이 시급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10. 27)

반도체 시장의 부진과 높은 수출의존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내 반도체산업은 차입경영에 의한 대규모 투자의 자제와 비메모리 투자 확대가 필요

## ■ 주목되는 한국 반도체 위기론

## ○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 감축이 필요

- Economist 紙,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 비교분석
- 대만업체들은 자기자본 조달, 소규모 투자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
- 한국업체들은 차입에 의한 대규모 투자로 과잉투자의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음
- 시황, 산업구조 측면에서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
- 99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
-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
- 자기자본에 의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강화
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11. 3)

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수많은 제도  
· 절차 등의 개선

## ■ 구조조정 가로막는 제도

## ○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요인의 제거

-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구호에 불과
- 특히 주주·채권 보호절차, 복잡한 간이 합병절차, 불리한 세제, 노동관계법 등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임

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신속한 제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인 대안임

- 「구조조정 특별법」 제정이 현실적임
  - 구조조정과 관련된 수많은 제도·법규·절차의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
  - 현재 기업의 경영난을 감안,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바람직
- 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11. 7)

99년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패방지협약에 대응해, 리베이트가 관행화된 해외건설업 대책과 동협약 악용방지를 위한 외교노력이 필요

■ 구체화되는 부패라운드

- 부패방지협약 참여로 깨끗한 경쟁풍토 조성
  - 대내외 동향
    - 법무부는 외국공무원에 뇌물제공시 처벌을 골자로 한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, 99년부터 시행 예정
    - OECD도 부패방지협약을 올 12월 각료회의의 서명을 거쳐 99년부터 적용할 방침
  - 관련산업에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
    - 리베이트 지급이 관행화된 해외건설업의 대책 마련
    - 부패방지협약의 악용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
- 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11. 7)

최근 급증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필요하나 인수·합병 등 구조조정 노력이 보다 절실

■ 부실채권 정리의 원칙

- 금융산업의 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잣대로 부실채권 정리해야
  - 정부,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검토중
    - 기존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는 급증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
    - 은행권과 종금사들의 부실채권 문제는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
  - 적자생존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
    -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모든 부실채권을 해결할 수는 없음
    - 부실경영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인수·합병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절실
- 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11. 12)